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관광 산업이 위축된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주민 대표, 지자체 대표, 관광학과 교수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민 대표님께서 요즘 우리 지역의 관광 산업이 얼마나 위축됐다고 보십니까?

주민 대표: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는 ○○동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동굴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30%나 감소했습니다. 이전에는 동굴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주말에는 빈방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주말에도 빈방이 너무 많습니다. [A] 음식점들도 손님이 없어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역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관광 관련 업소의 폐업률이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역의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자: 지역 경제의 침체가 심각할 정도로 관광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 교수: 관광 산업이 위축된 것은 이곳을 찾던 관광객들이 인근 지역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관광 산업은 다른 유인 요소가 거의 없어 ○○동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제반 시설이 낙후되어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아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B]

사회자: 동굴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제반 시설의 낙후, 홍보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주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 대표: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동굴과 연계한 관광 단지 조성, 편의 시설 확충 등을 약속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쓰이는 예산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

사회자: 저도 최근에 ○○동굴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도 편의 시설을 더 늘려야겠더군요. 지자체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자체 대표: 저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최근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해 관광 산업 활성화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새로운 문화 산업을 개발하여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D]

사회자: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 교수: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인근 □□군의 경우 최근에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의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레저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자: 좋은 말씀인 것 같네요. 주민 대표께서는 이러한 김 교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 대표:

1. '사회자'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문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② 토의의 배경을 언급하며 토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④ 토의 흐름에 따라 다음에 발언할 토의 참여자를 지정하고 있다.
- ⑤ 토의 참여자의 발언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2.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지역의 관광 산업이 위축된 현황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 ② [B]: 문제의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 ③ [C]: 현재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D]: 주민 대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을 밝히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E]: 인근 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3. '주민 대표'가 토의 과정에서 드러낸 자신의 문제의식과 관련 지어 말한다고 할 때, ㉞에 들어갈 발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②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관광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③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자칫 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④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이용하기보다는 인근 지역처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 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약속 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5] 다음은 인터뷰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기자 김민희입니다. 이번에 △△박물관에서 특별 기획전으로 '마야 문명 특별전'을 한다고 해서 '마야 문명' 관련 기사를 써 보려고 오늘 학예 연구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일하시는 데 방해가 된 건 아닐까요?

연구사: ㉠(웃으며) 만나서 반가워요. 크게 바쁜 일은 없으니까 염려 마세요.

학생: 감사합니다. 먼저 마야 문명이 어떤 문명이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구사: 마야 문명은 기원전에 발생해 기원후 1,500년 무렵까지 메소아메리카에서 꽃피었던 문명입니다.

학생: 메소아메리카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요?

연구사: 오늘날의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이 위치한 중앙아메리카 지역 일대를 메소아메리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마야인들이 자기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학생: 그건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연구사: 그럼 이 소책자를 먼저 보세요. 마야 문자는 일종의 상형 문자였는데, 매우 아름답고 장식적이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학생: ㉢와! 정말 아름답네요. 연구사님 말씀처럼 하나의 조각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참,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마야 문명은 0의 개념을 사용하는 등 수학과 과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구사: 맞아요. 마야 문명에서는 0의 개념을 이해하고 20진법을 사용하는 등 수학, 의학, 건축술 등의 분야가 발전해 있었고 뛰어난 경제 제도도 갖추고 있었어요. 또한 천문학도 발전하여, 지구가 돌며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일식과 월식 등도 잘 이해하고 있었답니다. 이를 토대로 매우 정확한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어요. 아마 종말론과 관련하여 마야 달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학생: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달력이 왜 종말론과 연결되었던 것인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구사: 마야 달력은 태양의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해 정밀하게 만든 달력이었는데, 2012년 12월 동지 무렵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서 한때 종말론을 유행시켰던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자들은 달력의 한 주기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종말을 예언한 것은 아니라며 그런 주장을 일축했어요.

학생: 그랬었군요. 그런데 이처럼 뛰어난 문명이 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연구사: 아무래도 서구 중심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가려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마야 문명 특별전'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마야 문명에 대해 학생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 주길 부탁드립니다.

학생: 말씀을 들어 보니 많은 친구들이 와서 보면 정말 유익하겠네요. 저도 꼭 와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 ② ㉡: 설명하려는 내용과 관련 있는 상대방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설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신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여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 질문의 형식을 통해 앞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5. 위 내용과 <보기>를 바탕으로 교지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나눈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인터뷰를 다녀온 후 결정한 기사 작성 지침 >

- 표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가 인상적으로 전달 되도록 제시한다.
- 기사의 내용은 인터뷰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된 생소한 지역의 명칭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 인터뷰한 내용 중 시각화가 필요한 내용은 시각 자료를 함께 신도록 한다.
- 인터뷰 과정에서 전문가가 당부한 내용이 기사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다.

- ① 세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마야 문명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표제는 '고대 문명의 숨은 보석, 마야 문명을 찾아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 ② 정훈: 인터뷰한 내용은 크게 고대 문명의 일반적 특징과 마야의 역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기사 내용도 이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면 좋겠어.
- ③ 수연: '메소아메리카'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이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언급해주는 게 좋겠어.
- ④ 보미: '마야 문자'와 관련된 내용은 시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소책자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함께 신도록 하는 게 좋겠어.
- ⑤ 민희: 학생들이 마야 문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학예 연구사님의 말씀을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 실으면 좋겠어.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작문 상황**
 ○ 시사성 있는 화제를 찾아 설득하는 목적의 글을 써 보자.

(나) **학생의 초고**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심폐 소생술로 살린 일이 화제가 되었다. 이 학생이 어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 발생 며칠 전 학교에서 심폐 소생술 교육을 ㉠ 받았다.

심폐 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실행하는 응급 처치로, 심장 정지가 발생한 후 4~5분 이내에 실시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의 생존율은 2~3배나 높아진다. 따라서 심장 정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현장 목격자가 심폐 소생술을 시행했는지 ㉡ 여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심장 정지 환자 중 현장 목격자에 의해 심폐 소생술이 시행된 비율은 6.5%로, 미국 33.3%, 일본 34.8%, 스웨덴 55.0%에 비해 매우 낮다.

위 학생의 사례처럼 심폐 소생술은 어린 학생들도 쉽게 익힐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심폐 소생술 시행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학생과 일반인이 받는 심폐 소생술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심폐 소생술 교육은 비용 대비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폐 소생술을 교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의 96.7%, 중학교 2학년의 94.8%, 고등학교 1학년의 91.4%가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 그리고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교육 참여율은 학생들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시간이 없거나 교육 받을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암이고 심장 질환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52.5명이 심장 질환 환자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 모두 심폐 소생술을 ㉤ 국민으로써 지녀야 할 기본 소양으로 인식하고, 심폐 소생술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 정부에서는 일반인들의 심폐 소생술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6.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이 아닌 것은?
- ①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통계 수치를 제시한다.
 - ②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교의 방법을 활용한다.
 - ③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화제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활용한다.
 - ④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다.
 - ⑤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화제와 관련한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을 보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자료 1] 스웨덴은 1983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때 여러 공공 기관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도록 한 결과, 참여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자료 2]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들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을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사용하는 교재가 제각각이어서 잘못된 정보가 담긴 경우도 많았다. 또 교육 시간, 활용 기자재 및 교육 방법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었다.

— < 조 건 > —

○ [자료 1]로부터 핵심 내용을 도출하여 ㉦에 활용할 것.
 ○ [자료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을 ㉦에 드러낼 것.

- ① 민간단체가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교육을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참여하는 단체들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 ②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되, 정부는 일반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③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교육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공공 기관부터 의무적으로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④ 일반인의 심폐 소생술 교육 참여율을 높이려면 일반인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⑤ 국가 차원에서 일반인이 손쉽게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되,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기관이 교육을 시행해야 하므로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8. (나)를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받았기 때문이다’로 고친다.
 - ②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여건’으로 고친다.
 - ③ ㉢: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④ ㉣: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그러나’로 고친다.
 - ⑤ ㉤: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국민으로서’로 고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밤샘 책 읽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작문 과제를 부여하였다.

작문 과제 1

‘밤샘 책 읽기 행사’에서 읽은 책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독서 감상문을 써 보자.

작문 과제 2

‘밤샘 책 읽기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9. 다음은 **작문 과제 1**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과 ㉡를 중심으로 파악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두: ‘밤샘 책 읽기 행사’에서 읽은 책들 중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본문 1: 이카로스는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게 되었다. 그는 너무 높이 날지 말라는 아버지의 조언을 잊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좇아 태양 가까이 올라가다 그만 날개가 태양에 녹아 바다로 추락하여 죽고 만다.

본문 2: 이 이야기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인간의 ㉠ ‘무모한 도전’은 결국 파멸을 가져오고 만다는 교훈을 준다. 하지만 이것은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 ㉡ ‘무한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실패할지라도 그런 도전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진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말: 나도 나의 한계를 정해 놓고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 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과 문제의 원인이 되는 ㉡를 연결시켜 인물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분석한다.
- ② 관습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과 개성적인 의미를 지닌 ㉡를 종합하여 자신의 지나온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 ③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을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와 비교하여 인물의 행동에 나타난 문제점을 부각한다.
- ④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 대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의 의미를 인물의 행위에 부여하여 글쓴이가 앞으로 가져야 할 태도와 연결한다.
- ⑤ 관념적으로 이해했던 ㉠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재고해 봄으로써 ㉡라는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여 글쓴이와 공동체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한다.

10. 다음은 **작문 과제 2**를 수행하기 위해 세운 계획과 이것을 반영한 학생의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작문 계획 >

- ㉠ ‘밤샘 책 읽기 행사’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힌다.
- ㉡ 행사의 일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다.
- ㉢ 행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주최 측에 바라는 점을 제시한다.
- ㉣ 행사에 참여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한다.
- ㉤ 후배들에게 행사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얼마 전 담임 선생님의 안내로 ‘밤샘 책 읽기 행사’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책을 읽는데 꼭 밤까지 새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독서 체험을 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행사는 오후 4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진행되었는데, 독서 퀴즈, 저자와의 대화, 자유 독서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행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저녁 식사 후에 진행된 ‘저자와의 대화’ 시간이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이면서 최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소설가 김○○ 선배가 함께해 주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소설가는 이야기의 단순한 생산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힘없는 이웃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

또한 그동안 읽고 싶었던 『그리스 신화』를 이 기회에 읽을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그 밖에 독서 퀴즈도 재미있었고, 조별로 함께한 야식 시간도 즐거웠다. 다만 야식으로 나온 음식들이 너무 식어서 모두들 불만스러워했는데, 다음에는 주최 측이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이런 점은 개선되면 좋겠다.

이번 ‘밤샘 책 읽기 행사’는 나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동안 입시 준비로 바빠서 책 한 권 읽기도 쉽지 않았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독서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시간도 내서 해야 하는 것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후배들에게도 내년에 있을 ‘밤샘 책 읽기 행사’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의 설명에 따라 학습지를 푼 결과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에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해요. 예를 들어, ‘도와 드리다’의 경우 ‘드리다’가 보조 용언이니까 ‘도와 드리다’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와드리다’도 허용하는 것이지요. 그럼 선생님 설명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학습지

* 다음은 보조 용언이 쓰인 문장이다. 띄어쓰기에 맞는 표현을 모두 찾아 ○표 하시오.

○ 활활 타던 불이 (꺼져 갔다 / 꺼져갔다). ... ①
○ 의자를 뒤로 (밀어내 버렸다 / 밀어내버렸다). ... ②
○ 네가 그 일에 (덤벼들어 보아라 / 덤벼들어보아라). ... ③
○ 책을 여러 번 (읽어도 보았다 / 읽어도보았다). ... ④
○ 공책에 (기록해 두었다 / 기록해두었다). ... ⑤

12.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단어들의 표기 원리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한글 맞춤법의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중 일부 >

㉠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중, 어간의 뜻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길이, 믿음

㉡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목거리(병의 일종), 거름(비료)

㉢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나머지, 올가미

- ① ‘맞다’에서 파생된 ‘마중’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 ② ‘걷다’에서 파생된 ‘걸음’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 ③ ‘막다’에서 파생된 ‘마개’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 ④ ‘넘다’에서 파생된 ‘너머’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 ⑤ ‘놀다’에서 파생된 ‘노름’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13.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1 > —

표준 발음법

제5항 ‘ㅈ ㅉ ㅋ ㆁ ㄱ ㆁ ㆁ ㄱ ㆁ ㆁ ㆁ ㆁ’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ㄱ’은 [ㄱ]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기]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 보기 2 > —

- 긍정적인 마음을 ㉠ 가져야[가져야]한다.
- ㉡ 협의[협비]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다.
- 젊은이들에게 ㉢ 희망[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다.
- 문화 유적에는 조상들의 ㉣ 지혜[지혜]가 담겨 있다.
- ㉤ 우리의[우리애]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보기>의 국어사전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배¹ [배] ㉠

「1」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 배가 나온다.

「2」 긴 물건 가운데의 불룩한 부분.

▶ 배가 부른 마대 자루.

배² [배] ㉡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 따위로 만든 물건.

▶ 배를 띄우다.

배³(倍) [배:] ㉢

(주로 고유어 수 뒤에 쓰여)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듭됨을 이르는 말.

▶ 힘이 세 배나 들다.

- ① ‘배¹’은 하나의 표제어 아래 여러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의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배¹’의 「2」의 용례로는 ‘배가 불룩한 돌기둥’을 들 수 있군.
- ③ ‘배²’를 활용한 속담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를 들 수 있군.
- ④ ‘배³’은 소리의 길이에 의해 ‘배¹’, ‘배²’와 의미가 변별될 수 있겠군.
- ⑤ ‘배¹’, ‘배²’, ‘배³’은 모두 의미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각각 등재하는군.

15. <보기>의 ㉠ ~ ㉤은 모두 중의적인 문장이다. 괄호의 의미만을 나타내도록 수정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교실에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 학생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 현규와 숙희는 어제 결혼하였다.
(→ 현규가 숙희의 남편이 되었다는 의미로)

㉢ 이것은 선생님의 그림이다.
(→ 그림 속 인물이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 아버지께서 귤과 사과 두 개를 가져오셨다.
(→ 과일 세 개 중 두 개가 사과라는 의미로)

㉤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 표정이 밝은 사람은 그녀라는 의미로)

- ① ㉠: '않았다'를 '못했다'로 바꾼다.
- ② ㉡: '현규와 숙희는'을 '현규는 숙희와'로 교체한다.
- ③ ㉢: '선생님의'를 '선생님을 그린'으로 교체한다.
- ④ ㉣: '귤과 사과 두 개'를 '귤 한 개와 사과 두 개'로 바꾼다.
- ⑤ ㉤: '밝은 표정으로'를 '사람들에게'의 뒤로 옮긴다.

16.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善愼慧響 ㉠ 니르샤디 五翁百帛 ㉡ 銀은도노로 다섯 줄기를 사아지라
 俱宮夷嬴 문즈브샤디 ㉢ 므스계 ㉣ 쓰시리
 善愼慧響 ㉤ 對甞答답호샤디 부텃기 반즈보리라
 - '월인석보' 권 1(1459년) -

[현대어 풀이]
 선혜가 이르시되 “오백 은돈으로 다섯 줄기를 사고 싶다.”
 구이가 물으시되 “무엇에 쓰시리?”
 선혜가 대답하시되 “부처께 바치리라.”

- ① ㉠을 통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 ② ㉡을 통해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알 수 있군.
- ③ ㉢을 통해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을 통해 초성자의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을 통해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에서는 시간이 중요하다. 음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통적 음악에서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선적인 것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시간성으로 일컬어진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 음악 미학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목적론적 시간성에서 ㉠ 벗어난 음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음악을 보여 준 대표적인 예술가로 치머만과 케이지를 들 수 있다.

치머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우주적 차원에서는 연속성을 띠며 진행하지만 정신적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러, 시간을 ‘공’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시간이 선적인 진행에서 벗어나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시간의 여러 시점(時點)들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치머만의 생각은 그가 다원적 사고를 추구했음을 보여 준다. 그는 하나의 시간 대신 여러 개의 시간 층을 병치시켜 복합적인 시간성을 드러냈다.

복합적인 시간성은 그의 ‘다원적 작곡 기법’으로 구현되었다. 그는 이 기법을 음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간의 층이 ㉢ 겹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인 ‘병사들’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음악가들의 악곡 일부를 그대로 자신의 작품에 가져다 쓰는 콜라주 기법을 ㉣ 써서 서로 다른 시간의 층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독립적인 박자와 템포를 동시에 한 작품에 사용하여 서로 다른 시간의 층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였다. 그 결과 시간의 순차적인 진행은 해체되어 여러 시간이 복잡하게 엉키게 되었다. 이를 두고 치머만은 ‘모든 음악적 사건들의 동시대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작품 속에 특정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후대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현대 음악에서 새로운 차원의 시간성을 보여 주는 또 한 명의 인물은 케이지이다. 그는 음악의 시간성 측면에서 전통적 개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새롭고 흥미진진한 시도를 보여 주었다. 그의 대표작 ‘4분 33초’에서 연주자는 무대에 등장하여 4분 33초라는 시간 동안 한 음도 연주하지 않는다. 그동안 그 시간은 예기치 않은 관객들의 기침 소리, 종이 만지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들로 채워진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는 작가의 의도나 목적에 의해 구조화된 시간성, 박자 구조에 따라 나타난 음악의 예측 가능한 시간성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시간성을 부정하는 ‘우연성의 음악’을 구현하였다. 이는 음악의 시간이 전통적 음악에서처럼 음악가의 논리적 조정을 통해서만 구성되지는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케이지는 그의 작품에서 ㉣ 유일하게 한 번만 존재하는 음악의 시간성을 표현했다. 이러한 그의 음악은 비의도적이려는 의도 외에는 아무 의도 없이 만든 음악으로, 완성보다는 과정에 치중하는 비결정성을 띠는 것이었다. 비결정성을 띠는 음악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험적이며, 똑같이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유일하다. 지금까지 음악을 시간의 연속성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그 연속성은 완전히 뒤죽박죽되었다. 음악의 시간성이 작품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만큼, 그의 음악에서는 전통적 시간성이 ㉤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17.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음악에 나타난 전통적 시간성 해체
- 치머만과 케이지의 음악을 중심으로
- ② 20세기에 나타난 음악 미학의 변화
- 음악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중심으로
- ③ 현대 음악에서의 작곡 기법의 변화
- 치머만의 다원적 작곡 기법을 중심으로
- ④ 현대 음악이 다원주의적 사고에 미친 영향
-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을 중심으로
- ⑤ 음악에서의 시간의 중요성
- 음악의 시간성과 작품 구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18.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성부1 Debussy (드뷔시) *Jeux* ♩. = 72 (♩ = 216) 3

성부2 Mozart (모차르트) *Klavierkonzert C-Dur, KV 467* ♩ = 134 (♩ = 268) 5

성부3 Greg. Choral (그레고리오 성가) *"Veni creator spiritus"* ♩ = 45-50 1

위 악보는 치머만의 '2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대화' 중 일부이다. 창작 시기가 다른 드뷔시의 작품, 모차르트의 작품, 그레고리오 성가를 성부 1, 2, 3에 배치하고, 개별 성부의 박자와 템포는 다르게 구성했다.

- ①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들을 개별 성부로 구성하여 복합적인 시간성을 드러내려 했겠군.
- ② 성부 1, 2, 3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은 시간을 '공' 모양으로 인식한 시간관과 관련이 있겠군.
- ③ 각 성부에 독립적인 박자와 템포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시간의 층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였군.
- ④ 드뷔시, 모차르트, 그레고리오 성가 음악의 일부를 가져다 쓰는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고 있군.
- 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조화를 지향하는 주제 의식을 통해 모든 음악적 사건들의 동시대성을 구현하려 했겠군.

1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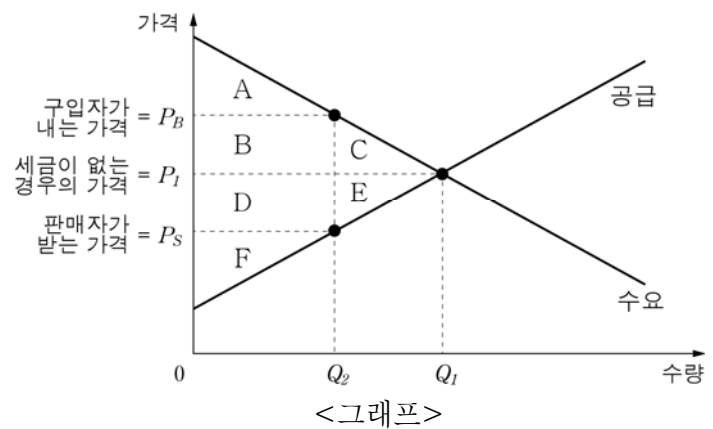
- ① 음악가의 의도나 목적에 의해 구조화되지 않는 '우연성의 음악'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 ② 과정보다 완결성을 중시하는 음악을 창작할 때에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 ③ 음악가의 논리적 조정을 통해 음악의 시간성이 예측 가능한 음악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 ④ 음악의 시간을 선적으로 구성하여 관객이 음악 진행에 대해 짐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⑤ 목적론적 시간성을 구현하려는 음악가의 의지가 작품에서 비결정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20. ㉠ ~ ㉢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탈피한
- ② ㉡: 변모할
- ③ ㉢: 중첩된
- ④ ㉣: 활용하여
- ⑤ ㉤: 와해되었다고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익이 감소하는 양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래프>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점에서의 균형 가격은 P_1 이고 균형 거래량은 Q_1 이다. 균형 가격 P_1 , 균형 거래량 Q_1 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 얻게 되는 이익이 극대화된다. <그래프>의 수요 곡선은 수요자의 지불 용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아래,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위에 있는 $A+B+C$ 이다.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은 생산자의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아래, 공급 곡선 위에 있는 $D+E+F$ 이다. 이때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A+B+C+D+E+F$ 이다.

<그래프>에서 ㉠ 세금이 $\overline{P_S P_B}$ 만큼 부과되면, 시장은 원래의 균형 상태를 벗어난다.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P_1 에서 P_B 로 상승하여 소비자 잉여는 A 가 된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P_1 에서 P_S 로 낮아져 F 가 생산자 잉여가 되고, 거래량은 Q_1 에서 Q_2 로 감소한다. $\overline{P_S P_B}$ 에 Q_2 를 곱한 값인 $B+D$ 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된다. 이때 B 는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 D 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세이다. 세금 부과 후의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조세 수입의 합인 $A+B+D+F$ 이다. 세금 부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세금 부과로 인해 총 잉여가 $C+E$ 만큼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C+E$ 는 총 잉여의 감소분으로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세금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한 지표이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큰 폭으로 변할 때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 대체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작다. 수요 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공급 곡선과 세금의 크기가 동일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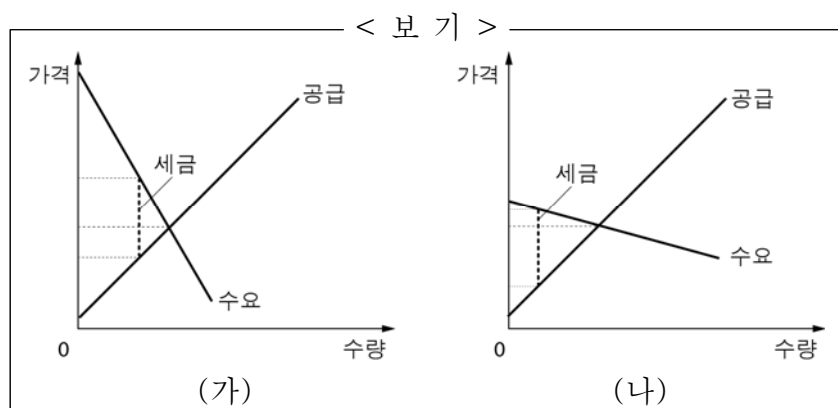
세금 부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경제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금 부과가 커다란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한다. 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라도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 소비자 잉여: 구입자의 지불 용의 금액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 * 생산자 잉여: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의 판매 용의 금액을 뺀 나머지.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개념과 의미가 변천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세의 유형과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③ 조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조세 부과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 ⑤ 조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는 동일한 크기의 세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세금 부과 이전의 (가), (나)의 균형 거래량은 동일했다. (가), (나)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가), (나)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다르다.

- ① 생산자 잉여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② 정부의 조세 수입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③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④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⑤ (나)의 수요는 (가)의 수요보다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부가 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에 비례하여 세금 부담의 정도가 높아진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로 인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은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은 식료품, 의약품 등의 생활필수품에서는 부가 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최근 부가 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①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면세해 준 것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게 한 것이겠군.
- ②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들까지 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면세 범위를 넓히면 그 상품들의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겠군.
- ③ 부가 가치세의 부과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겠군.
- ④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에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면 그 상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정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겠군.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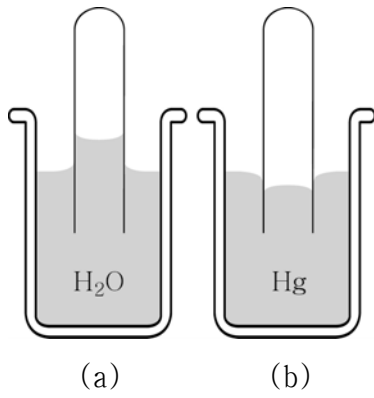
< 보 기 >

㉠.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 시장 거래량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가격보다 낮아진다.
 ㉣. 정부의 조세 수입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보다 커진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5~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리관을 <그림>의 (a)와 같이 물(H₂O)에 넣으면, 물이 유리관 안쪽 면에 붙어 올라가고 유리관 내의 수면은 오목한 모양을 띠게 된다. 반면 <그림>의 (b)와 같이 유리관을 수은(Hg)에 넣으면, 수은은 유리관 안쪽에서 내려가고 유리관 내의 수은 표면은 볼록한 모양을 띠게 된다.



<그림>

유리관 안의 액체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응집력과 부착력이라는 두 힘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 응집력은 한 물질의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때문에 입자들이 서로 모이려는 힘을 뜻하고, 부착력은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접해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뜻한다. 유리관을 물에 넣었을 때는 물과 유리관 안쪽 면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이 물의 응집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유리관 안쪽 면에 붙는 물 입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물기둥이 올라간다. 반면 유리관을 수은에 넣었을 때는 수은의 응집력은 수은과 유리관 안쪽 면 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수은 입자들이 유리관 안쪽 면에 붙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뭉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수은 기둥은 아래로 내려간다.

한편 액체의 입자들이 모이려는 힘인 응집력은 표면 장력이라는 힘으로 나타나 액체 표면의 모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표면 장력은 액체의 표면이 공기와 맞닿아 있을 때 그 경계면의 넓이를 최소화하려는 힘을 말한다. 액체 내부의 입자들은 모든 방향에서 균등한 인력이 작용하는 반면 액체 표면의 입자들은 공기와 맞닿아 있는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하지 않고 나머지 방향으로만 인력이 작용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액체는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힘을 가지게 되고, 동일한 부피이면서 표면적이 최소로 되는 기하학 구조는 구이기 때문에 액체의 표면은 볼록한 모양을 띠게 된다.

유리관을 물에 넣었을 때 유리관 안의 수면이 오목한 모양을 띠는 것은 물과 유리관의 부착력이 물의 표면 장력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리관을 수은에 넣었을 때 유리관 안의 수은 표면이 볼록한 모양을 띠는 것은 유리관과 수은의 부착력보다 수은의 표면 장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2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표면에서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힘이 액체 표면의 모양을 볼록하게 만든다.
- ② 액체 표면에서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들은 모든 방향에서 균등한 인력을 받는다.
- ③ 유리관 안의 액체 이동은 응집력과 부착력이라는 두 힘의 작용과 관련이 있다.
- ④ 수은의 응집력은 수은과 유리관 사이의 부착력보다 강하다.
- ⑤ 응집력은 한 물질 내에서 입자들이 서로 모이려는 힘이다.

26.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가) 비누를 녹인 물과 순수한 물에 동일한 유리관을 각각 넣은 다음 물기둥의 높이를 측정했다. 그 결과 비누를 녹인 물에 넣은 유리관의 물기둥 높이가 순수한 물에 넣은 유리관의 물기둥 높이보다 낮았다.
- (나)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과 깨끗한 유리 표면에 각각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그 결과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에는 볼록한 물방울이 맺혔으나, 깨끗한 유리 표면에는 물이 넓게 퍼졌다.

- ① (가)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비누를 녹인 물은 순수한 물의 경우와 달리 물의 응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겠군.
- ② (가)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비누를 녹인 물의 입자들과 유리관 사이의 부착력이 순수한 물의 입자들과 유리관 사이의 부착력보다 강하기 때문이겠군.
- ③ (나)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과 물 사이의 부착력이 깨끗한 유리 표면과 물 사이의 부착력보다 약하기 때문이겠군.
- ④ (나)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 위에 물을 떨어뜨리면 깨끗한 유리 표면 위에 떨어뜨렸을 때에 비해 물의 응집력이 약해지기 때문이겠군.
- ⑤ (나)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왁스를 칠한 유리 표면 위에 있는 물방울이 깨끗한 유리 표면 위에 있는 물보다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입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상에서 우리는 별개의 대상을 같은 이름으로 ㉠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그것들이 무엇인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옆집에서 키우는 '진돗개'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치와와'를 생김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개'라고 부른다면, '개'라는 이름이 뜻하는 그 무엇, 즉 '개'라는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속성을 '진돗개'와 '치와와'가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 둘 모두를 '개'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개념이 범주화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개념과 범주는 무엇일까? 개념은 특정한 사물이나 사건, 상징적인 대상들의 공통된 속성을 추상화하여 종합화한 보편적 관념을 말하고, 범주는 같은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라고 말할 수 있다. 개념은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포는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에 속하는 여러 사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필연적 성질 전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생물이라는 말의 경우 '생명을 가지고 생활 현상을 영위하는 존재'가 내포가 된다. 반면 외연은 그 개념이 ㉡ 지시할 수 있는 대상 전체의 범위를 가리킨다. 생물이라는 말의 외연은 생물이라는 개념이 지시할 수 있는 대상 전체, 곧 동물, 식물 등이 된다. 이는 외연이 범주화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범주화란 특정한 사례가 특정한 범주의 구성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특정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부분 집합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범주화는 위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하위 범주인 '작은북'은 상위 범주인 '북'의 부분 집합이 되며, '북'은 보다 높은 상위 범주인 '타악기'의 부분 집

합이 되는 식이다. 이러한 범주화는 인간이 사물과 현상을 변별하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만일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그 경험을 개별적인 속성에 기초해서 독특한 것으로 지각한다면 엄청나게 다양한 경험에 ㉔ 압도당할 것이며, 접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접하는 모든 대상들을 그 이전에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같지 않은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한다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범주화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물이나 현상들을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며, 그 사물이나 현상들과 관련 있는 이후의 일들을 ㉕ 예상할 수 있게도 해 준다. 예를 들어 '침엽수'가 침 모양의 잎사귀를 가지고 있으며, 건조와 추위에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을에 여행을 가서 침 모양의 잎사귀를 가진 나무를 본다면, 그는 그 나무를 침엽수로 범주화하여 그 나무가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도 잘 견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주화는 인류가 오랫동안 지식을 ㉖ 축적해 온 방법으로 유용한 도구이지만 범주화에 기초해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성급하게 범주화하여 오관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판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범주화할 수 있어야 한다.

27. 밑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범주화의 다양한 종류
- ② 범주화의 위계적 성격
- ③ 내포와 외연의 의미
- ④ 개념의 범주화 기능
- ⑤ 범주화의 유용성

28.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ㄱ. A는 곤충이 다리가 세 쌍이며 거미는 다리가 네 쌍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거미를 보고 거미와 곤충의 유사한 모습에만 주목해 거미가 곤충에 속한다고 말했다. 곤충과 거미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B는 그 말을 듣고 거미는 곤충이 아니라고 A에게 알려 주었다.

ㄴ. 유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과, 개, 장미, 소, 국화, 포도 그림을 보여 주며 어떤 그림을 봤는지를 외워 보라고 했다. 유아들은 그림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외운 반면, 청소년들은 그림들을 '과일', '꽃', '가축'으로 나누어 외웠다.

ㄷ. C는 수업 시간에 영상물을 통해 기도가 막혔을 때의 응급 처치 방법을 배웠다.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C는 영상물에서 본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응급 처치를 시행하였다. 그 덕분에 그 친구는 무사했다.

- ① ㄱ에서 A는 거미가 지니고 있는 곤충과의 유사한 모습에 주목하여 범주화했겠군.
- ② ㄱ에서 B는 거미의 개념과 관련해 곤충과 구별되는 거미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A가 잘못 범주화한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었겠군.
- ③ ㄴ에서 그림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 '유아들'이 제시된 그림들을 모두 기억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겠군.
- ④ ㄴ에서 '청소년들'은 '사과, 개, 장미, 소, 국화, 포도' 각각의 그림 속 대상이 지닌 독특한 고유의 특성에 주목해 외웠겠군.
- ⑤ ㄷ에서 C는 '친구'가 숨을 못 쉬게 된 것을 기도가 막혔을 때의 증상으로 범주화했기 때문에 영상물을 본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군.

29. 밑글을 토대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연역 추론의 예]

㉗ 대전제: 어류는 모두 아가미로 호흡한다.

↓

㉘ 소전제: 잉어는 어류이다.

↓

㉙ 결론: 따라서 잉어는 아가미로 호흡한다.

- ① ㉗에서 '아가미로 호흡한다'는 것은 '어류'의 외연에 해당한다.
- ② ㉘는 '어류'의 모든 내포가 '잉어'의 모든 내포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아 범주화한 것이다.
- ③ ㉙는 '어류'라는 범주에 해당하는 속성이 '잉어'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도출되는 것이다.
- ④ ㉗와 ㉘가 각각 대전제와 소전제가 되는 것은 '잉어'의 외연이 '어류'의 외연보다 크기 때문이다.
- ⑤ ㉙에서 '잉어'는 '어류'의 상위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㉙에서 '아가미로 호흡한다'는 속성을 가진다.

30. ㉑ ~ ㉙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일.
- ② ㉒: 가리켜 보임.
- ③ ㉓: 보다 뛰어난 힘이나 재주로 남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함.
- ④ ㉔: 어떤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 됨.
- ⑤ ㉙: 보호하고 간수해서 남김.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윤 승상의 아들 지경은 사리 분별력과 문장력이 뛰어나 과거에서 장원을 한다. 지경은 사랑하는 사이인 최연화와 혼례를 올리던 중 임금의 부름을 받고 궁에 가 자신이 귀인 박 씨의 딸인 연성 응주의 남편으로 간택된 사실을 알게 된다. 부마가 된 지경은 응주를 멀리하고 연화를 만나기 위해 밤마다 연화의 방에 숨어들기를 반복한다. 그러던 중 지경은 연화의 부친인 최 공에게 발각된다.

공이 애련하여 등을 쓰다듬어 가로되,
 “네 어찌 그리 미혹한가. 용주를 중대하여 자녀를 낳고 살며 용주를 잘 타이르면, 네 부친과 주상(主上)께 이런 절박한 사연을 고할 것인즉, 주상은 인군(仁君)이시라 허하시리니, 그때 빛나게 해로하기는 생각지 아니하고, 갈수록 용주를 박대하며 귀인의 험담을 이르고 복성군을 미워하며, 밤을 타도망하여 날마다 내 집에 오니, 용주가 알면 화가 적지 아니하리니, 끝을 어이할꼬.”

부마가 가로되,
 “넌들 어찌 모르리이까마는 용주는 천하 괴물 박색이고, 귀인은 간악이 견줄 데가 없고, 복성군은 남 혈기 심한데 홍명화, 홍상이 박 귀인과 결탁하여 필연 **그옥한 흉계**를 지을지라, 용주를 후대하고 그 당에 들었다가 멸문지환(滅門之患)을 면치 못하리니, 아내를 애중하고 용주를 박대하면 불과 빙부와 부친의 죄가 큰즉 정배(定配)요, 적은즉 삭직(削職)이요, 소저는 귀양밖에 더 가리이까. 싫은 것을 강인하고 **그른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

공이 말이 없다가,
 “어찌하든 밤이 깊었으니 들어가 자라.”
 생이 사례하고 이후로는 주야로 오니, 공과 소저가 민망하여 아무리 간하여도 듣지 아니하더니, 윤 공이 알고 불러 대책하고 용주 궁을 떠나지 못하게 하나, 산 사람을 동여 두지 못하고, 날마다 최 씨에게 가니 용주 어찌 모르리요. 부마 내당에 들어간 때 용주 가로되,

“내 비록 용렬하나 임금의 딸이요, 빙례로 부마의 아내가 되었거늘 업수이 여겨 천대하기 심하도다. 최 씨를 얻어 고혹*하였으되 태부(太夫)는 두 아내 두는 법이 없거늘, 부마 어찌 두 아내 있으리요. 최홍일은 어떠한 사람이완대 부마에게 재취를 주어 주상과 첩을 업수이 여감이 심하뇨.”

[A] 지경이 정색하여 가로되,
 “내 할 말을 용주 하시는도다. 일국에 도령이 가득하거늘, 이미 얻은 사람을 내 어찌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귀를 탐하여 용주와 화락하리요. 용주 만일 최 씨를 청하여 한 집에서 화목하기를 황영*을 본받을진대, 최 씨와 같이 공경하고 화락하려니와, 투기하여 나를 원망한즉 평생 박명을 면치 못하리도다.”

용주 웃으며 가로되,
 “당초에 조강지처 있는지 없는지 내 심궁 처녀로 어찌 알리요. 상명으로 부마의 아내가 되어 나온 지 거년이나, 천대가 태심하여 행로(行路) 보듯 하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요.”

지경이 웃으며 가로되,
 “여염 사람이 부부 간에 하사하되 용주 너무 지극 공경하여 구실 삼아 하루에 두어 번 들어가 앉기로 편치 못하고 꿇어 앉으니 이밖에 더 공경하리요. 주상이 현명하시니 나를 그르다 아니하실지라. 본대 **간악한 후궁은 두려워 아니하니**, 아내 사랑하는 묘리를 배워다가 가르치소서.”

하고 크게 웃고 소매를 떨치고 나오니, 용주 종일토록 울더니, 그 후 입궐하여 박 씨더러 일일이 고하며 설위하니, 박 씨 대로하여 상께 이대로 주하여,

“최 씨를 없이하고 **부마를 죄 주어 주오이다.**”
 청하니, 상이 윤지경을 불러 책망하여 가로되,
 “네 아넨즉 용주요 정처(正妻)란 것이 유의 중하고, 또 여염 필부 회매와 달라 금지옥엽(金枝玉葉)이어늘, 네 최 씨를 퇴

채하였거늘, 퇴혼* 취하라 한 명을 거역하고 감히 교통하여 쫓기를 위법하는가. 네 또 빙모*를 간악한 유로 훼방한다 하니, 네 무슨 일로 보았는가. 네 또한 빙자지의 있고 처부모라 하였으니, 어버이를 훼방하는 자식이 어디 있으리요.”

지경이 머리를 땅에 닿아 사죄하여 가로되,
 “하교 이리하시니 황공하여이다. 신이 외람하오나 소회를 세세히 전달하리이다. 참판 최홍일은 신의 아버지 종매부라. 어려서부터 죽장지의와 아버지 형제지의로 신이 부형같이 공경하고 홍일이 신을 자식같이 사랑하옵더니, 조강 윤 씨 작고 하옵고 후처 이 씨 들어와 생녀하오니, 자못 총혜하고 자색이 빼어나오니, 아버지와 홍일이 서로 약속하여 피차 서로 소신은 최가 사위 될 줄 알고, 최 씨도 소신의 아내 될 줄 아옵더니, 전년 봄에 혼인날을 정하와 신이 최가에 가 전안하옵고 배례를 겨우 하온 후, 명패를 급히 받아 신이 합친을 못 하고 들어오니, 부마위를 주시고 연성 용주를 맡기시니, 신이 과연 용주의 뜻이 아니온 줄 아오되, 최 씨는 어려서부터 서로 보아 사랑하옵던 마음이 깊었삽고, 용주로 하와 이제까지 참았사오니 부귀빈천이 다르오나, 원역*하옵은 비상지원*이 없지 아니하오리까. 용주를 대접하고 최 씨를 다른 데 출가하라 하신들 언약이 깊고 빙채와 교배합환하였으니, 어찌 다른 데로 **신의를 버리고 갈 생각**을 하리이까마는, 업교를 두려워 홍일이 신을 거절하여 오지 못하게 하오나, 홍일을 속이고 가만히 가서 만나온 일이 있사오나, 용주 신에게 온 지 겨우 거년에 신정의 뜻을 모르며, 투기하여 신을 준책하옵다가 또 전하게 고하니 이도 여자의 부덕(婦德)이라 하시리이까.”

상이 탄식하여 가로되,
 “네 나이 어리되 소견이 높아 **급암*의 직간(直諫)을 가졌도다.** 그러나 용주는 내 딸이라, 생심도 막대치 말라.”

- 작자 미상, ‘윤지경전’ -

- * 고혹: 아름다움이나 매력 같은 것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림.
- * 황영: 중국 순제의 두 황비인 아황과 여영.
- * 퇴혼: 정한 혼인을 어느 한 편에서 물림.
- * 빙모: 장모.
- * 원역: 원통한 누명을 써서 억울함.
- * 비상지원: 억울한 옥살이로 인한 원한.
- * 급암: 황제에게 간(諫)하는 것을 잘했던 중국 전한의 정치가.

31.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경’은 자신이 부마가 된 것이 ‘용주’의 탓은 아니라고 말했다.
- ② ‘임금’은 ‘귀인’을 대하는 ‘지경’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 ③ ‘윤 공’은 ‘지경’이 용주 궁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 ④ ‘최 공’은 밤마다 ‘연화’를 찾아오는 ‘지경’의 처지에 대해 안쓰럽게 여겼다.
- ⑤ ‘용주’는 ‘지경’이 부마로 정해지기 전부터 ‘지경’과 ‘최 씨’의 사이를 알고 있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윤지경전」은 애정 소설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연을 위해 여러 장애와 시련에 맞서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최 씨를 정처(正妻)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주인공의 소신 있는 태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태도는 당대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는 처첩(妻妾)을 엄격히 구별하고 정처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중시했던 당대의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 또한 조선 중종 때 후궁인 박 씨와 그의 아들 복성군을 중심으로 외척 세력이 형성되고 그들에 의해 정치 질서가 문란해졌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점도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언행을 통해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박 귀인’, ‘홍명화’, ‘홍상’ 등이 ‘그윽한 흥계’를 꾸밀 것이며 그들이 결국 큰 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경’이 생각한 데서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② ‘그른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라는 말은 ‘급암의 직간을 가졌도다’라는 ‘임금’의 말과 함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지경’의 태도를 부각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③ ‘간악한 후궁은 두려워 아니하나니’라는 ‘지경’의 말은 ‘최 씨’와 ‘옹주’의 인물 됴됨이의 차이를 드러낸 말로 처첩을 엄격히 구별했던 당대의 사회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부마를 죄 주어 주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귀인’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연을 위해 ‘지경’이 맞서야 하는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 ⑤ ‘최 씨’에 대한 ‘신의를 버리고 갈 생각’이 없다는 ‘지경’의 말은 정처(正妻)에 대한 도리를 지키고자 한 것으로 당대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말이라고 할 수 있어.

3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옹주’는 ‘지경’에게 닥칠 일을 예견하며 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② ‘옹주’는 ‘지경’이 신분의 차이를 들어 자신을 멀리했던 것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지경’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옹주’가 한 말의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지경’은 ‘옹주’가 부귀를 탐해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다.
- ⑤ ‘지경’은 ‘옹주’가 ‘옹주’를 위하는 자신의 마음까지 왜곡해 가며 ‘최 씨’를 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부귀라 구(求)치 말고 빈천이라 염(厭)치 말아
인생 백년이 한가할사 사니 이 내 것이
백구야 날지 말아 너와 망기*하오리라

<제1곡>

천심 절벽 섰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로 버즐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난 몰나 하노라

<제2곡>

㉠ 보리밥 과 생채를 양(量) 맛취 먹은 후에
모재*를 다시 끌고 북창하(北窓下)에 누엇시니
눈 압해 태공 부운*이 오락가락 하낫다

<제3곡>

공산리(空山裏) 저 가난 달에 혼자 우난 저 두견아
낙화 광풍에 어나 가지 으지 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4곡>

저 가막이 좃지 말아 이 가막이 좃지 말아
야림 한연*에 날은 초차 저물거날
어엿불사 편편 고봉*이 갈 바 업서 하낫다

<제5곡>

서산에 해 저 간다 고기 빅 썰단 말가
죽간*을 들너 뵈고 십리 장사(十里長沙) 내려가니
연화* 수삼 어촌(數三漁村)이 무릉인가 하노라

<제6곡>

- 권구, 「병산육곡」 -

- *망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 *모재: 띠로 지붕을 이은 집.
- *태공 부운: 넓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 *야림 한연: 들판 숲 속의 차가운 안개.
- *편편 고봉: 훨훨 나는 외로운 봉황.
- *죽간: 대나무 장대. 여기서는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
- *연화: 안개가 피어오르는.

(나)

집 앞에는 조그만 시내가 있다. 이 시내는 냇락에서 발원하여 십 리쯤 흘러 이곳 월파진에 이른다. 집 앞에 이르러서 조금 깊어지기는 하지만 겨우 무릎이 잠기는 정도이고, 폭은 겨우 한 길 남짓 된다. 시내의 양쪽 언덕에는 오래된 버드나무 두어 그루가 있는데, 가지가 무성하여 냇물을 뒤덮을 정도이다. 이 시내와 버드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냇물은 상쾌함을 풍기고 버드나무 또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마음에 들어, 앉고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마침내 젊은이들과 함께 궁리하여 규모를 정하고 이웃의 친구에게서 시내를 가로지를 만한 상수리나무 두 개를 얻어 오고 젊은이들에게 쓸 만한 나무 수십 개를 베어 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긴 나무는 세로로 놓고 짧은 나무는 가로로 놓아 칩덩굴로 단단하게 엮어서 평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시내에 걸쳐 있으므로 ‘계상(溪床)’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다만 그 지세가 낮고 좁아 훤히 탁 트인 경관이 없어 아쉬웠다.

그러나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속세의 잡다한 일들을, 이 계상에 의지하여 모두 다 나의 이목(耳目)에서 떨쳐 버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그윽하고 고요한 정취를 느낄 수 있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냇락이 동북쪽으로 높이 치솟아 있으며, 깎아

지른 절벽이 천 길 높이로 하늘과 맞닿아 있고, 오래된 소나무와 전나무가 산등성이와 계곡에 우거져 있어, 나의 명상을 일으키고 나의 흥취를 북돋아 준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니**, 여기서야말로 번거로운 일들을 말끔히 잊고 흥겹게 지낼 만하다. 쉬기도 여기서 쉬고 생활도 여기서 하고 책도 여기서 보고 시도 여기서 읊으니, 이곳에서 못하는 일이 없다. 간혹 해가 질 무렵이면 심부름하는 아이가 ㉠ **탁주한 사발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짝옥 들이키고 나면 막힌 가슴 속이 절로 트여 몸의 원기가 왕성하게 솟아오른다.

그러면 드디어 일어나 망건을 젖혀 쓰고 옷깃을 느슨히 하고 이리저리 거닐면서 둘러본다. 높은 산은 어찌 저리도 낮으며 먼 하늘은 어찌 저리도 가까운 것일까? 몸은 **한 평상을 떠나지 않았는데**, 정신은 **우주 공간을 유람한 것 같으니**, 이 어찌 깊은 운치가 아니겠는가? 때로 나른하고 싫증이 나면 스스로 팔 베고 옆드려 흐르는 **냇물**을 바라본다. **물고기들이 떼 지어** 작은 물결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제 나름대로 즐거워하는 모습은 더욱 보고 즐길 만하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니, 이것이 계상에서의 즐거움이다.

이 평상은 애초에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우연히 만든 것으로 질박하고 졸렬한 채로 놓아두고 애써 깎고 다듬지 않았기에 나에게 적당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고, 당우*에 이어져 있지도 않다. 또 땅에 닿아 있지 않고 냇물 위에 걸쳐 있어 그 아래로는 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고 있으니, 내가 찾던 진정한 즐거움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무릇 만물은 원래 붙어 있는 곳이 없을 수 없지만, 붙어 있는 곳에 집착하여 얽매어 있어도 안 되는 것이다. 오직 자연의 이치에 맡겨서 외물(外物)의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사심(私心) 없이 물(物)이 오가는 대로 두어야 한다. 나아가 천하의 일에 있어서 오로지 주장함도 없고,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도 없어야 한다. 공평하고 바른 마음으로 만나는 바에 따라 마땅하게 잘 처리하고 **때에 따라 잘 변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붙어 있으면서도 **한곳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 궁하여 뉘우침이 있는 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 장현광, 「계상설」 -

* 당우: 규모가 큰 집과 작은 집을 아울러 이르는 말.

34.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번잡한 속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③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④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⑤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다.

3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 '부귀'를 구하지 말고 '빈천'을 싫어하지 말라는 것은 '망기'를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② <제2곡>에서 '천심 절벽'은 '백구'를 벗으로 삼는 '어조 생애'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에 해당한다.
- ③ <제4곡>에서 '낙화 광풍'에 의해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우는 '두견'의 처지는 '설위 하'는 화자의 심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④ <제5곡>에서 '저 가막이'가 '쫓'는 것과 '이 가막이'가 '쫓'는 것은 '편편 고봉'이 놓인 부정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 ⑤ <제6곡>에서 '수삼 어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가 '무릉인가 하노라'로 드러난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장현광의 호는 '여헌(旅軒)'이다. '여(旅)'는 나그네라는 뜻이고, '헌(軒)'은 집이라는 뜻이다. '여헌'이란 말에는 사방 모든 것이 자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에게 '여헌'은 일정한 장소와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것으로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편안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그는 진정한 즐거움이란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① '버드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냇물'은 고정된 형태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글쓴이에게 만족감을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계상'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계상'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헌'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글쓴이가 '한 평상'에서 '우주 공간을 유람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계상'이 글쓴이에게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주는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냇물' 속에서 '떼 지어' 놀고 있는 '물고기들'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의 즐거움은 글쓴이가 지향하는 '진정한 즐거움'과 상반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때에 따라 잘 변화'해 '한곳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군.

3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성찰하도록 이끄는 소재이다.
- ② ㉠, ㉡은 모두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있는 소재이다.
- ③ ㉠, ㉡은 모두 강호 공간에서의 자기 절제로 인한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④ ㉠은 소박한 삶의 모습을, ㉡은 자적하는 삶 속에서 고조된 흥취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은 외로운 처지를 한탄하는, ㉡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소망하는 태도를 부각하는 소재이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저물어 오는 육교 우에
한 줄기 황망한 기적을 뿌리고
 초록색 램프를 달은 화물차가 지나간다

어두운 밀물 우에 갈매기떼 우짚는
 바다 가까이
 정거장도 주막집도 헐어진 나무다리도
 온-겨울 눈 속에 파묻혀 잠드는 **고향**

산도 마을도 포플라 나무도 고개 숙인 채
호젓한* 낮과 밤을 맞이하고
 그 곳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조그만 **생활의 촛불**을 에워싸고
 해마다 가난해가는 **고향 사람들**

낡은 비오롱*처럼
 바람이 부는 날은 **서러운** 고향
 고향 사람들의 한 줌 희망도
 진달래빛 노을과 함께
 한 번 가고는 다시 못 오기

저무는 도시의 옥상에 기대어 서서
 내 생각하고 **눈물지움**도
한 떨기 들국화처럼 차고 서글프다

- 김광균, 「향수」 -

* 호젓한: 쓸쓸하고 외로운.

* 비오롱: 바이올린.

(나)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 속에는
 밤 사이 내려와 놀던 초록별들의
 퍼렇게 멎든 날갯죽지가 떨어져 있다.
 어린 날 뒤울안에서
 매 맞고 혼자 숨어 울던 눈물의 찌꺼기가
 비칠비칠 아직도 거기
 남아 빛나고 있다.

심청이네집 심청이
 빌어먹으러 나가고
 심봉사 혼자 앉아
 날무처럼 꼬들꼬들 즐고 있는 툇마루 끝에
 개다리소반 위 비인 상사발*에
 마음만 부자로 쌓여주던 그 햇살이
 다시 눈뜨고 있다, 다시 눈뜨고 있다.
 장승상네 참대밭의 우레 소리도
 다시 무너져서 내게로 달려오고 있다.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 속에는
 내 어린 날 여름 냇가에서
 손바닥 벌려 잡다 놓쳐버린
 발가벗은 햇살의 그 반쪽이

앞질러 달려와서 기다리며
 저 혼자 심심해 반짝이고 있다.
 저 혼자 심심해 물구나무 서 보이고 있다.
 - 나태주, 「등 너머로 훑쳐 듣는 대숲바람 소리」 -

* 상사발: 품질이 낮은 사발.

38.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연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명사로 끝맺는 시행을 통해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확장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39.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호젓한’, ‘서러운’을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노출되고 있다.
- ② ‘한 줄기 황망한 기적’과 ‘낡은 비오롱’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③ ‘한 떨기 들국화처럼 차고 서글프다’에는 ‘눈물지’을 수밖에 없는 화자의 비애감이 집약되어 있다.
- ④ ‘언제 꺼질지 모르는 / 조그만 생활의 촛불’을 통해 ‘고향 사람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저무는 도시의 옥상’은 화자의 현재 위치를 드러내는 시공간적 배경으로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케네스 버크는 문학적 소재를 크게 ‘내적 소재’와 ‘외적 소재’로 구별하고 있다. 전자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창조적 의미를 지니게 된 소재라면, 후자는 잘 알려진 역사나 고전에서 선택된 소재를 의미한다. (나)는 ‘대숲바람 소리’를 중심으로 제시된 내적 소재들과 「심청전」에서 가져 온 외적 소재들이 절묘하게 접목되어 있는 작품이다. 화자의 어린 시절과 「심청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상황이 겹쳐지면서, ‘심청’이 가난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품었던 희망이 화자 자신의 어린 시절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나)는 아픔 속에도 희망이 존재하며, 상처마저도 그리움과 추억이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 ① 어른이 된 화자가 ‘대숲바람 소리’를 통해 과거와 대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내적 소재인 ‘대숲바람 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볼 수 있군.
- ② 내적 소재인 ‘대숲바람 소리’ 속에 ‘초록별의 멎든 날갯죽지’와 ‘눈물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보아, ‘대숲바람 소리’가 환기하는 정서는 어린 시절의 아픔이라 할 수 있군.
- ③ ‘심청’이 ‘심봉사’를 혼자 남겨 두고 ‘빌어먹으러’ 나갔을 때의 장면이 외적 소재로 제시되어, 화자의 힘겨웠던 어린 시절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군.

- ④ 외적 소재와 내적 소재가 접목되면서, ‘심청’이 지녔던 희망이 자신의 삶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이 ‘그 햇살이 / 다시 눈트’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⑤ 외적 소재를 통해 내적 소재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고통마저도 ‘햇살’이 되었던 어린 시절을 외면해 온 화자 자신에 대한 후회가 ‘발가벗은 햇살’에 투영되어 있군.

[41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현세는 셋방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우연히 만난 옛 친구인 두갑이는 어떤 집의 주인이 셋방 사람들을 내보내려 하는데 그들이 나가려 하지 않는다면, 현세가 그 집을 구매하는 것처럼 연기를 해 준다면 그 대가로 방을 내어 줄 것을 약속한다. 고민 끝에 현세는 집을 구매하는 척하여 결국 사람들을 내쫓고, 구문*을 지불하기 위해 집주름* 영감을 만난다.

“선생님, 이러지 마시구 좀 더 생각해 주셔야죠.”
하는 것이었다.

“그만하든 되디 않습니까?”

“선생님두 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신 집이야 그저 은으셨죠. 어제두 요 뒤에 집 매매가 있었는데 매 칸에 꼭꼭 일만 오천 원씩에 팔렸죠. 그런 데 비기면 그저지 뭐니까. 거 다 선생님 복이시지만, 내가 별별 수단을 다 써서 그렇게 싸게 사셨다는 것두 생각하셔야죠. 그리구 전에두 잠깐 말씀드렸지만서두 일이 성사만 되게 허느라구 저편에서는 일 전 한 푼 못 받았습죠.

[A] 그뿐인가요, 전재민*으루 오신 선생님네 하루라두 속히 이사 오시두록 허느라구 셋방 사람들 방 내는 덴 얼마나 또 속을 썩였다고요. 선생님두 그날 같이 가셨었으니까 짐작이 가시겠지만 그동안 내가 하루에두 몇 번씩 그 노파 성화를 받았는지 모르죠. 증말 이번에 학질 났습니다, 학질 났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나 아니면 절대루 셋방 사람들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다 선생님네 하루라두 속히 이사 오시두록 허기 위해 헌 게 아납니까. 그러니 선생님이 이런 거 다 생각해 주셔야 협죠.”

셋방 사람들 내보내는 데 힘들었다는 것은 집주름 영감의 말대로 그렇다 해도, 저편 집주인의 구문은 물론 셋방 사람들 방 얻어 내보내 준 샅까지 모두 두갑이의 말대로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어찌됐건 현세는 이 일을 어서 끝내고만 싶었다.

“우린 전재민이 아니웬까?”

“그런 말씀은..... 어디 전재민이구 전재민 아니구가 있나요. 선생님 곁은 이현테 비기면 우리가 전재민이죠. 수다한 식솔에, 식구가 자그만치 열넷이랍니다. 버는 사람이라곤 이 늙은 것 혼자구 그나마 조금씩 보태든 아들 녀석은 턱 앓아눕지를 앓았수. 그런데다 엇그젠 또 며늘애가 몸꺼지 풀어 났으니, 그래 우리 성한 사람이야 어쨌건 앓는 사람 죽술이나 허구 애어미 미역국이나 끓여 먹여야 허잖겠수? 선생님 그러시지 마시구 더 좀 생각해 주십쇼.”

그러는 늙은 집주름의 얼굴은 온통 땀투성이가 되고 눈도 충혈이 돼 있었다.

현세는 문득 자기네도 미역 이파리나 사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현세는 이 늙은 집주름에게 이번 집 매매의 내막을 톡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현세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경황도 경황이러니와 우선 그럴 기운이 없다는 걸 느꼈다.

현세가 그냥 걷기 시작하니깐 집주름 영감은 다급하게,
“아니 선생님, 다른 건 다 그만두구 보통 구문대루 일 푼만

친대두 천 원이면 십만 원에 대한 구문밖엔 더 안 되지 않수? 어디 그래서야 되나요.”

하고 수표를 도로 돌려주기라도 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는 것이었다. 여기서 현세는 두갑이가 말한 찰거머리라는 말과 잡아땀 적에는 딱 잡아떼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으나 그보다도 이제는 더 서서 말할 기운조차 없어 그냥 걷기만 했다. 이 현세의 태도가 늙은 집주름에게는 또 혹시 수표를 내준다면 그것을 그냥 받아 가지고 갈 것같이 보였던지 탄원하는 어조로,

“그럼 선생님 다시 잘 생각해셔서 처분해 주십쇼. 그럼 조심해 가시우.”

하면서 꾸벅꾸벅 절을 했다.

푼 구름이 걷힌 하늘 아래서 현세는 이제는 다리만 허청거릴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아까보다 아주 흐리어졌다. 눈을 가느스름히 뜨면 좀 낮게 보이지만 그렇게 눈을 가느스름하게 하면 그러지 않아도 자꾸 들어만 가는 눈이 절로 찌뿌득하니 감기어지며 쓰린 눈물이 내배는 것이었다.

(중략)

“그런데 말야, 자네에게 미안한 말 하나 하게 됐네.”

한다.

현세는 왜 그런지 가슴이 섬뜩함을 느꼈다.

“저, 다른 게 아니구 말야, 집권이 자기네가 방을 다 써야 될 일이 생겼단만.”

현세는 종내 가슴이 철렁 무너앉을밖에 없었다.

두갑이는 바지 뒤 포켓에서 십 원짜리 한 묶음을 꺼내 현세 앞에 놓으며,

“그래 미안하다구 하든서 이걸 보내데. 정말 안됐네. 좋은 일 하려다 되레 자네한테 원망 듣게 됐어.”

그리고는 살피듯이 현세를 한 번 바라다보고 나서,

[B] “글쎄 첨엔 단돈 오백 원을 내놓지 않겠어? 그래 내 고향을 질렀지. 그 사람이 돈이나 오백 원 바래구 그런 숭한 광대놀음 할 사람인 줄 아느냐구. 당신 눈에는 오백 원이 대단해 벌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무리 전재민이라두 이런 돈 없이두 사는 사람이라구 해 줬지. 그랬더니 오백 원을 더 내놓두만. 서울깍쟁이라더니 정말.....”

사뭇 분개해 하는 말투요 표정이었다.

현세는 또 이 두갑이의 분개해 하는 말투와 표정과와는 달리 가슴속 한가운데서 누구에게라 없이 악이 머리를 들고 일어남을 느꼈다. 그것은 뱀같이 독이 오른 대가리였다.

“하기야 요즘 아무리 돈 가치가 없대두 천 원이든 적잖은 돈이지. 그리구 말야, 자네 방 문젠 내 또 알아봄세. 발 벗구 나 서든 그까짓 방 한 칸쯤 문젠가. 내 꼭 책임지지. 아예 이번 집에 못 가게 된 거 서운하게 생각 말라구. 되레 잘되는 일인지두 몰라. 교통두 불편하구 더구나 요새 그 집권은 돈냥이나 버니까 뭇 부족할 것 없이 들여다 먹는데 말야, 한집에서 그 걸 보구 어떻게 견디나. 내 자네 있기 존 방 하나 구해 주지.”

현세의 악은 이제야 분명히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이 두갑이에게 향해짐을 느꼈다. 그저 이놈의 우뚝한 코를 평안도식으로 한 대 지끈! 그러나 그것은 벌써 이미 다 죽어 가는 실뱀의 악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두갑이가 윗몸을 현세 앞으로 내밀더니 돈 묶음을 들어 엄지 손가락으로 한 편 끝을 몰아 쥐었다가 펠릭펠릭 놓아 주면서,

“요새 십 원짜리 2호에 가짜 돈이 많다데. 그래서 여긴 2호 짜린 한 장두 받아 오지 않았지.”

그러는 두갑이의 두꺼비 입에서는 또 불고기와 소주와 마늘을 먹은 뒤에 나는 냄새가 풍기어 왔다.

현세는 종내 이 두갑이의 입김에 못 견디어 도망이나 하듯

이 그곳을 나오고 말았다. 저도 모르는 새 돈 묶음만은 집어 쥔 채. 두갑이의, 자기는 이 다방에만 오면 만날 수 있으니 꼭 만나자는 말을 먼 메아리처럼 등 뒤로 들으면서.

- 황순원, 「두꺼비」 -

- * 구문: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
- * 집주름: 집을 사고팔거나 빌리는 흥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 전재민: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사람.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여러 인물들의 내적 독백을 나열하여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⑤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시대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4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B]에는 모두 현세를 위해 행한 노력이 강조되어 있다.
- ② [A], [B]에는 모두 자신과 현세가 처한 부정적 상황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
- ③ [A]와 달리 [B]에는 현세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A]와 달리 [B]에는 현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 ⑤ [B]와 달리 [A]에는 현세의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표현되어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 현세는 일제 강점기에 만주 일대를 떠돌다 해방 이후 큰 기대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온 전재민이다. 해방 후 혼란으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전재민들은 동포들에게조차 이해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타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궁핍하고도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다. 작품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덕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혼란한 현실에서 공동체 의식이 흔들리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 ① 집주름 영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바로 세우려 했던 현세의 고뇌에 찬 '눈물'을 통해 도덕이 무너진 혼란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 ② 자신의 '악'이 '다 죽어 가는 실백의 악'일 뿐임을 깨닫는 현세에게서 당대 현실 속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전재민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
- ③ 두갑이에게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돈 묶음만은 집어 쥔 채' 자리를 떠나는 현세에게서 전재민의 궁핍한 처지를 엿볼 수 있다.

- ④ '우린 전재민이 아니겠는가?'라는 현세의 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동포들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전재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⑤ 자신의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처지의 '셋방 사람들'을 내쫓는 역할을 한 현세에게서 도덕보다 자신의 생존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우리 설화 속에서 두꺼비는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보다 강한 대상과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동물로 자주 등장한다. 또한 우리 전래 동요에서는 두꺼비에게 집을 달라고 비는 등 두꺼비를 기원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두꺼비 이미지를 변형하여 '두갑이'라는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 ① 설화의 두꺼비가 강자 앞에서 나약했던 것처럼, 윗글에서도 두갑이를 집주름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 것으로 그려냈군.
- ② 설화에서 두꺼비가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과 달리, 윗글에서는 현세가 두갑이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으로 구성했군.
- ③ 설화와 전래 동요에 두꺼비가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처럼, 윗글에서도 독자들이 두갑이에게 희망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형상화했군.
- ④ 설화에서 두꺼비가 정의로운 존재로 여겨진 것과는 달리, 윗글에서 현세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두갑이가 이용했을 뿐임을 깨닫는 것으로 설정했군.
- ⑤ 전래 동요에서 두꺼비에게 집을 달라고 기원한 것처럼, 윗글에서도 현세는 두갑이가 방을 얻어 주리라는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으로 구현했군.

45. 윗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주름 영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세는 기진맥진(氣盡脈盡)해 있군.
- ② 현세는 두갑이의 말을 듣고 그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고 있군.
- ③ 집주름 영감은 현세에게 돈을 더 받기 위해 애걸복걸(哀乞伏乞)하고 있군.
- ④ 집주름 영감의 말에 나타난 집주름 영감의 집안 상황은 가히 설상가상(雪上加霜)이군.
- ⑤ 두갑이는 현세에게 자신이 나중에 방을 얻어 주겠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